

SM3 종오리의 육성기 사료급여 체계

〈스핀 피더(Spin Feeders)를 이용한 사료급여〉

글 : 닉 린(Nick Lynn) 체리벨리사
ROW 총괄매니저
번역 : 한국오리협회 허관행 과장

체리벨리사는 각기 다른 종오리들의 유전적 잠재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십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SM3 종오리의 사양관리를 위한 단계별 목표체중 자료를 제공한다. 사육현장에서 얻어지는 통계 수치들을 분석한 결과 주령별 목표체중에 따라 종오리의 산란율 및 부화율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체리벨리사의 SM3 종오리는 높은 성장능력과 사료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육성기간 동안 임의적으로 사료를 급여해서는 아니된다. 종오리의 관리자는 오리가 실제 섭취하는 사료량 제어를 통해 체리벨리가 권장하는 목표체중에 맞춰 사육하여야 한다. 이는 1일령 새끼 오리가 농장에 입식되는 날부터 신경써야하는 사항이다.

생후 21일까지의 체중 및 균일도 관리는 종오리의 산란기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체리벨리사는 1일 단위의 사료급여 체계를



스핀 피더가 설치된 오리사육장은 사료의 원활한 분배와 균일도를 보장한다.

권장한다. 새끼오리는 배속의 난황으로 약 72시간동안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비행기에서의 장기간 운송으로 이 영양분은 이미 소진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2~3일령까지는 마리당 1일 최대 25g까지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모든 새끼오리들이 충분히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21일령부터 126일령(18주령)까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체리밸리사가 제공한 목표체중과 유사하게 사육하는 것이며, 이는 성성숙과 산란개시, 산란의 지속성, 종란생산수, 종란의 크기, 산란율 및 부화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일 사료급여 관리 시스템으로 목표 체중에 맞춰 관리하여야 한다.

체중의 측정

매주 암컷 및 수컷의 체중 측정을 통해 목표체중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로써 사료급여량을 결정한다.

7일령까지는 최소 50수, 최대 150수의 오리의 체중을 한꺼번에 측정한다. 7일령부터 14일령까지는 10수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21일령 이후부터는 개체별로 개별 측정한다.



체리밸리사의 체중 측정 모습(울타리를 이용해 전자저울 깔때기 사용)

체중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견고한 구조물이 필요하다. 생체중은 오리에게 사료를 급여하기 전 아침 그리고 매주 동일한 요일에 측정한다. 50수 이상의 오리들을 울타리로 구분하고 모든 오리들의 체중을 측정한다. 개체별 체중을 기록한 후 암, 수 각각의 평균 체중과 균일도를 계산한다. 목표 체중은 체리밸리사의 SM3 사양관리 매뉴얼에 제공되는데 목표 균일도는 최소 85%로 개체별 $\pm 1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체중이 비이상적으로 높거나 낮게 측정될 경우 해당 개체는 다시 측정한다.

종오리의 육성기간동안 사양관리 핵심은 사료급여량의 결정이다. 주간단위로 사료급여

량과 각각의 그룹별 체중을 기록(수치를 그래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임)하고 목표체중과 실제체중을 비교한다. 사료급여량을 늘리거나 줄이는것은 실제체중과 목표체중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서로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주 사료급여량을 증가시켜 나가는것은 종오리의 균일도를 향상시키고 적기에 산란 개시 및 산란피크에 도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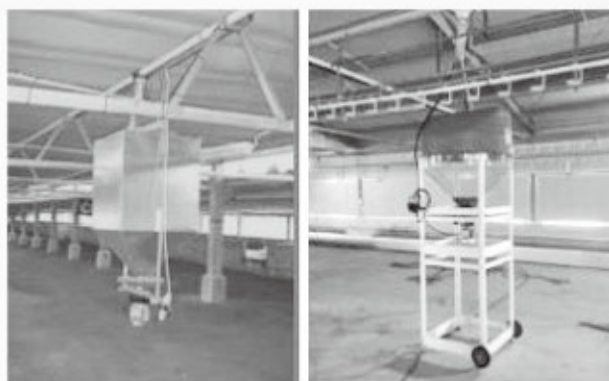
사료의 공급

목표체중 관리에 따라 종오리는 점진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매일 배고픔을 빨리 느껴 사료를 보다 빨리 찾게 된다. 35일령에 도달할때 사료급여는 1회, 1시간 이내가 좋다. 사료를 섭취하는 공간이 너무 좁거나 사료통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오리들은 서로간의 경쟁으로 상처가 나거나 부상을 입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며, 결국 폐사로 이어진다. 사료섭취간에 오리들의 경쟁은 어떤 개체는 더 많이 먹고 어떤 개체는 덜 먹게되는 등 사료섭취량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오리의 성장속도는 사료섭취량을 결정짓고 더 크거나 작은 개체가 생기게 되면 결국 균일도가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예전의 오리 사료급여 방법은 곡물이나 펠렛 사료를 손으로 바닥에 뿌려주는 체계였다. 이는 현재에도 울타리에서 사육되는 오리나 사육밀도가 낮은 소규모 농가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스핀 피더는 최근 손으로 사료를 뿌려주는 대안으로서 대규모 사육농장에서 단시간동안 사료의 급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회전하는 원반을 이용해 펠렛사료를 자동으로 바닥에 뿌려주는데 가격이 비



스핀 피더 시스템은 축사 지붕에 매달거나 바닥에 세우는 방식이다.

짜지 않고 설치와 작동이 용이하다. 많은 기자재 업체들은 완전 자동으로 사료량을 측정하고 분배하면서도 작동이 간편한 스피ن 피더 시스템을 제공한다. 제작사마다 원반의 모양은 상이하다. 저렴한 제품은 사료를 빠르고 균일하게 뿌려주는 대신에 종종 기계 주변에서 도넛 형태로 사료가 분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다 정밀한 제품의 경우 기계 주변을 비롯하여 바닥까지 사료를 고르게 뿌려준다. 따라서 주요 스피ن 피더 제품들은 원반의 지름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저렴한 제품의 경우 원반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모터로 변경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스핀 피더는 대략 750수당 1개꼴로 설치한다.

스핀 피더의 사용을 위해서는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으면서 먼지 발생이 적은 펠릿사료가 필요하다. 부드러운 펠릿은 사료분배 과정에서 깨지기 쉽고 미세한 입자로 인해 사료허실이 발생한다.

스피너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라면 스피너의 개수를 늘려 스피너 한개당 사료량 분배량은 줄이면서도 사료를 신속하고 균일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오리 마리수 대비 설치할 수 있는 스피너의 최다 개수는 호퍼의 모양과 용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Key points

- 입추 후 21일까지의 사양관리는 산란기 종오리의 생산성과 직결된다.
- 사료의 급여량은 정기적이고 정확한 체중측정에 따라 결정된다.
- 사료의 적정한 분배는 오리군의 체중에 따른 균일도와 생산능력을 결정짓는다.



출처 : 영국 체리밸리사 2017 Winter Edition